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박형준 (광주대학교)

-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높아졌다.
-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삶의 질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의 차이는 최근에는 작아졌다. 이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삶의 질은 정체된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삶의 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삶의 영역별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의 차이는 상당하다.
-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느끼는 장애의 부정적 영향은 동일하지 않으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 또한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있으면 가족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았다.

이 글은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지금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 현황을 비교하고, 장애인 그룹에서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삶의 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장애가

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그 가족의 삶에 미친 영향을 장애인이 지닌 여러 속성별로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삶의 질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필 수 있는 한국의 사회조사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와 장애인삶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매우 긴 기간의 현황을 볼 수 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이나 여러 인적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기에는 장애인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 반면, 장애인삶패널 자료는 비장애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장애인 표본이 충분하여 장애인이 지닌 여러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삶패널은 비장애인 표본을 수집하지는 않는다. 이에 주제에 따라 각 사회조사 자료가 지닌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는 상대적인 차이에 초점을 두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장애 정도와 유형,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등 비교하려는 차원의 상대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그래프의 축 범위를 지표마다 조정하였다. 두 개 이상의 지표 혹은 그래프를 비교해야 할 때에는 축의 범위를 고정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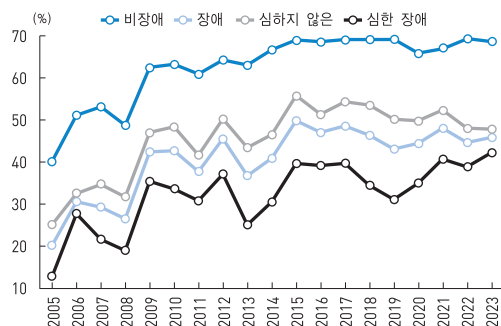
장애인 삶의 질 추이

[그림 xi-15]는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직업(일), 사회적 친분, 여가생활을 모두 고려할 때,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을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모든 기간에 걸쳐 살펴본 것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2005년 20.3%로 시작하여, 2023년의 45.9%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다만, [그림 xi-15]의 최상단에 있는 비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추이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 비장애인의 만족도는 2005년에 40.2%, 2023년에 68.7%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하면 어떻게? 그림에서는 추세선의 변동이 작지 않고, 비장애인의 만족 비율과 장애인의 만족 비율의 차이가 마치 평행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수치로 보면, 2005년 당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삶에 만족하는 비율의 차이는 19.9%p였고, 2023년에는 22.8%p이다. 최근 5년(2019~2023)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만족 비율의 차이 평균은 22.8%p이고, 직전 5년(2014~2018)의 차이 평균은 21.9%p,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평균은 21.7%p이다. 양 집단의 만족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양 집단의 만족 비율의 격차는 소폭이나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2008년에는 비장애인의 만족 비율

이 40~50% 초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 이르러 70%에 육박하는 만족 비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 비율의 차이는 작다고 보기 어렵다. 즉,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장애인 그룹 안에서 관찰되는 차이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기준 1~3급)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기준 4~6급)의 만족도 차이는 2019년에는 19.0%p에 달할 정도로 작지 않은 수준이었다. 2018년과 2019년의 격차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0년(14.8%p)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 만족도 비율의 차이가 5.6%p로 상당히 좁혀졌다. 이 정도로 차이가 좁혀진 것은 「한국복지패널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림 xi-15] 장애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2005~2023



주: 1)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자아존중감의 추이를 비장애인과의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로젠버그의 자아 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준용하여 총 10개의 문항으로 조사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25; Rosenberg, 1965). [그림 xi-16]은 알려진 사용법에 따라 4점 척도로 이루어진 10개 문항에 응답한 점수의 평균을 산출한 것이다.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한국복지패널 조사표와 유저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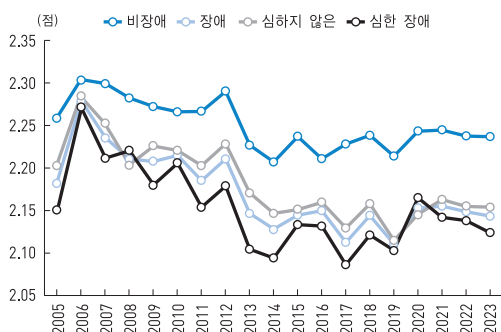
예상한 대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자아 존중감이 낮았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자아 존중감 점수의 차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2005년에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차이는 0.076였는데, 2006년에 전 기간 중에서 가장 좁혀졌다가(0.025), 크고 작은 변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커

지면서 2023년에 이르러 0.093까지 벌어졌다. 장애인 그룹 안에서 나타난 격차는 앞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비해 큰 편은 아니었다.

다음은 UN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행복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칸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점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Helliwell et al., 2016).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삶의 사다리 점수’라고 표현하며,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제시한 후 위치를 선택하게 하는데, 가장 아래(0)는 삶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를, 꼭대기(10)는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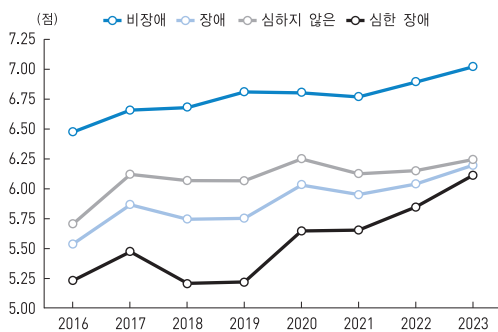
비장애인의 삶의 사다리 점수는 2016년 6.48로 시작하여 2023년의 7.02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장애인의 점수 또한 2016년 5.54에서 2023년 6.20으로 증가하였고, 비장애인과 점수 차이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감소했다.

[그림 xi-16]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2005-2023



주: 1)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4점 척도)의 평균 점수.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그림 xi-17] 장애인의 삶의 사다리 점수, 2016-2023



주: 1) 칸트릴 사다리 척도의 평균 점수(0~10점).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장애인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차이는 2016년의 0.48에서 2018년에 0.86, 2019년에는 0.8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0.60)부터 감소하여 2023년에는 0.13으로, 장애인 그룹 내부의 차이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과 감소세는 앞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추이와 유사하다.

영역별 삶의 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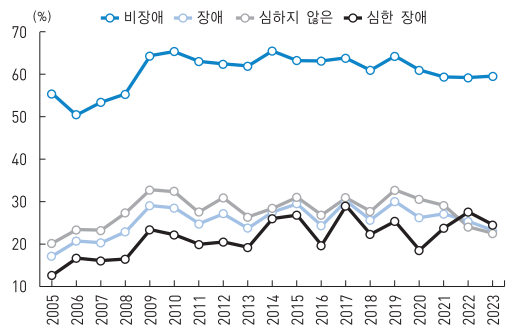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그림 xi-15]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모두 7가지 영역의 항목을 고려하여 응답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장애인이 7개 항목 중 건강, 가족의 수입, 그리고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비율의 추이를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건강 영역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만족 비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이다(그림 xi-18).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만족 비율의 차이는 기간을 통틀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장애인은 기간의 대부분에서 만족 비율이 60%를 넘었지만, 장애인의 경우 2019년에 30%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만족하는 비율이 20%대를 유지하였다.

또한 장애인 그룹 안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차이가 다른 영역에 비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시점은 2020년

(12.0%p)으로, 이는 당시의 감염병 사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21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건강 영역의 삶의 질은 장애인 그룹 내부에서 매우 동질적인, 이른바 하향 평준화된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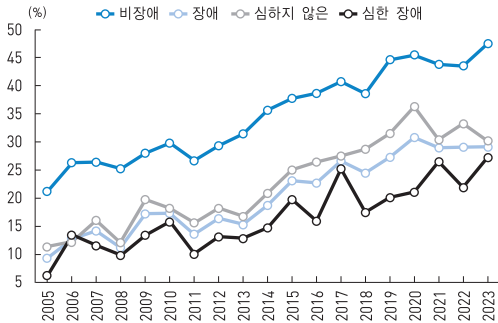
[그림 xi-18] 장애인의 건강 만족도, 2005-2023



주: 1)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장애인이 가족의 수입에 만족하는 비율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난 기간에 꾸준히 증가하였다(그림 xi-19). 비장애인의 만족 비율이 2005년의 21.3%에서 2023년에 47.5%가 되는 동안, 장애인의 가족 수입 만족도는 2005년의 9.4%에서 2023년에 29.2%가 되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만족 비율의 차이는 커지거나 줄었다고 볼 수 없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른 만족 비율의 차이는, 비록 가장 최근 연도에는 감소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커졌다.

[그림 xi-19] 장애인의 가족 수입 만족도, 2005-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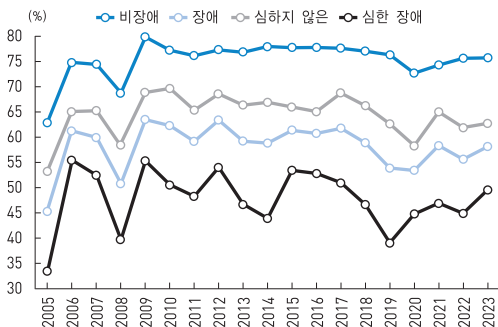


주: 1)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사회적 관계 영역의 만족 비율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인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모두 시점별 등락의 형태가 같다. 다만, 집단 간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커진다는 것이 관찰된다(그림 xi-20).

[그림 xi-20]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 2005-2023



주: 1)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비장애인이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2005년과 2008년에 70% 아래로 내려간 것을 제

외하고는 2023년의 75.6%에 이르기까지 70% 중후반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장애인의 만족 비율은 2015~2016년에 6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23년의 58.0%에 이르기까지 50%대를 유지해 왔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만족 비율의 차이는 최근 5년(2019~2023)에 이르러 평균 19.0%p로 상당히 크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만족 비율이 낮아진 것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장애 유형별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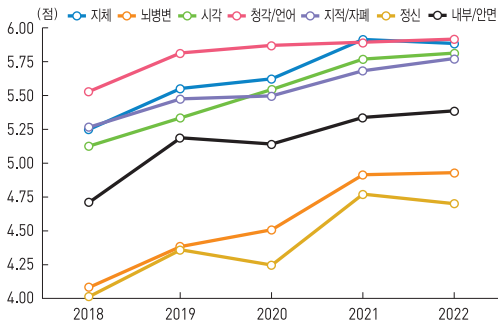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장애인삶패널을 이용하여 한국복지패널에서 유효 표본이 부족해 살펴보기 못하였던 장애 유형별 삶의 만족도를 영역별로 살펴본다. 장애인삶패널의 만족도 측정은 10점 척도를 이용하였기에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그룹에서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장애 유형은 정신장애이다. 2018년 4.01점에서 2022년 4.70점으로 4년 동안 0.69점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만족도가 낮은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로, 2018년 4.08점에서 2022년에 이르러 4.93점이 되었다. 다만, 뇌병변장애의 경우 2018년의 초기값에서 2022년에 0.85점이 높아져, 모든 장애 유형 중에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유형이다. 청각/언어 장애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모든 장애 유형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2018년: 5.53점, 2022년: 5.91점).
그다음이 지체장애로 2018년의 5.25점에서
2022년에는 5.88점으로 청각/언어 장애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 유형도 작지 않은 상승폭을
보였다.

기타 장애 유형은 점수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시점에 따른 변화 추이 자체는 대동소이하였다.

[그림 xi-21] 장애 유형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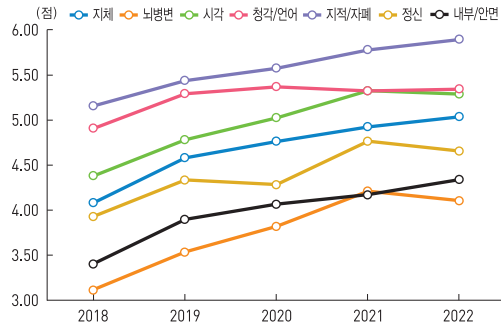
주: 1) 만족도 점수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10점(매우 만족)의 평균 점수.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건강 만족도가 가장 낮은 장애 유형은 뇌병변
장애였고, 그다음이 내부/인면 장애로 나타났다.
이들 장애 유형은 건강상 문제가 많다는 것이 지
표로 나타난다. 다만, 뇌병변장애의 경우, 낮은
초기값(2018년: 3.12점)으로 인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2022년: 4.11점). 건강 만족도가 가
장 높은 장애 유형은 지적/자폐로, 2022년 기준
5.90점을 기록하였다. 지적/자폐의 경우, 2018년
대비 상승폭도 0.74점으로 작지 않은 수준이다.
청각/언어 장애는 건강 만족도가 두 번째로 높은
장애 유형으로, 상승폭은 가장 작은 0.44점이지

만, 2022년 기준 만족도 점수는 5.35점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장애 유형에서 건강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가운데, 비록 1년 동안의
변화이지만, 최근에 만족도가 감소한 장애 유형
은 정신장애(2021년: 4.77점 → 2022년: 4.66점)
와 뇌병변장애(2021년: 4.21점 → 2022년: 4.11점)
이다.

[그림 xi-22] 장애 유형별 건강 만족도,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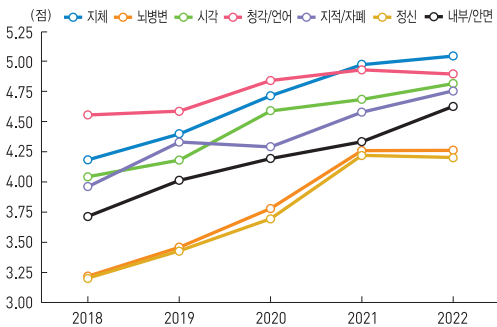
주: 1) 만족도 점수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10점(매우 만족)의 평균 점수.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
유형은 2022년 기준으로 지체장애(5.05점), 청
각/언어(4.90점), 시각(4.82점), 지적/자폐
(4.7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체장애의
만족도 점수는 2018년 대비 큰 상승폭(0.86점)
을 보였다.

뇌병변장애와 정신장애의 만족도는 2022년
기준 각각 4.27점과 4.21점을 기록하여 장애 유
형 중 가장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지만,
2018년 대비 상승폭 자체는 다른 장애 유형에 비
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영

역의 만족도처럼 최근 1년 동안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이후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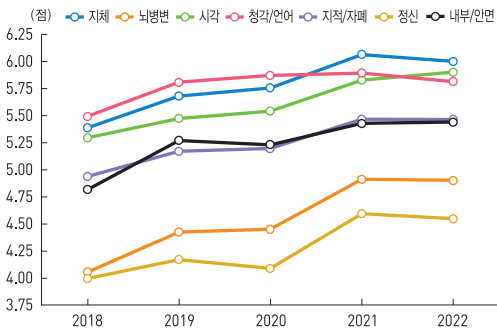
[그림 xi-23] 장애 유형별 수입 만족도, 2018-2022



주: 1) 만족도 점수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10점(매우 만족)의 평균 점수.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는 2022년을 기준으로 세 가지 군으로 묶을 수 있었다. 지체장애(6.00점), 시각장애(5.91점), 청각/언어 장애(5.82점)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군으로, 지적/자폐(5.47점)와 내부/인면 장애(5.44점)는 중간군으로, 뇌병변장

[그림 xi-24] 장애 유형별 사회적 관계 만족도, 2018-2022



주: 1) 만족도 점수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10점(매우 만족)의 평균 점수.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애(4.91점)와 정신장애(4.55점)는 하위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청각/언어 장애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애 유형에서 감염병 사태가 심각하였던 2019년과 2020년에 증가세가 주춤하였다가 2021년과 2022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기 값이 낮았던 뇌병변장애와 정신장애의 만족도 상승폭이 큰 편이다.

장애 발생 전과 후의 삶의 질 비교

한국의 장애인 중 88.1%는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다(보건복지부, 2024).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개인의 생애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장애를 갖기 전과 후의 삶의 질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장애를 갖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이 글의 목적에 부합한다.

「장애인삶패널조사」에서는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패널에게는 1차 조사에서 장애를 갖기 이전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매 차수 조사하는 현재의 삶의 만족도 조사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다. 건강, 수입, 주거환경, 학교생활, 직업, 결혼생활, 사회적 관계, 전반적 삶의 만족도로 영역이 나뉘어 있으며, 장애인 패널은 각 영역에 대해 “① 매우 불만족한다”부터 “⑩ 매우 만족한다”에 이르는 응답 항목 중에서 선택한다.

[그림 xi-25]는 1차에서 조사한 ‘장애 발생 이

전의 삶의 만족도'와 2018년(1차 기준 연도)부터 2022년(5차 기준 연도)까지 '현재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것이다(현재 삶 점수/장애 발생 전 삶 점수×100). 100%를 넘어서면 장애를 갖기 이전의 삶보다 현재의 삶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얼마나 수용하였는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추이와 유형별 차이를 통해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어느 장애 유형이 더 취약한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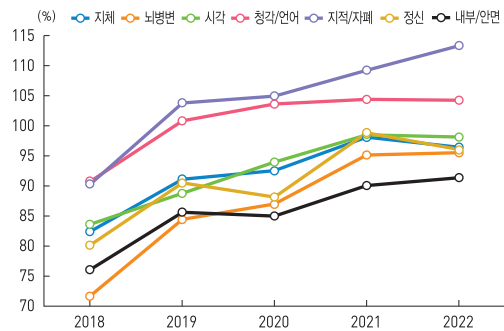
장애 유형 중 지적/자폐와 청각/언어의 경우, 조사 첫해에 이후로 만족도가 점점 높아져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10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인다. 이는 이들 장애 유형에서 장애를 갖기 이전에 비해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수준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 외 장애 유형은 100% 미만의 수치를 보인다. 5개 연도 내내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인 2021년과 2022년에는 정체된 형태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선천성 장애를 포함한 장애 유형별 삶의 질 추이와 유사하다. 다만, 장애 유형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증가세가 뚜렷한 것은 장애를 가진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장애 수용의 결과일 수도 있다.

장애 유형 중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수용에 따라 스스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낮다(91.4%). 조사 첫해인 2018년(76.1%)에 비하면 크게 상승하였지만, 수준 자체는 낮다. 내부 장애인은 만성질환을 꾸준히

히 다스려야 하는 이른바 현재진행형의 건강 상태를 가진 경우로, 영구적인 손상을 가진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장애 수용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림 xi-25] 장애 발생 이전 대비 현재 삶, 2018-2022



주: 1) 만족도 점수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10점(매우 만족)의 평균 점수.
(조사 시점의 점수 / 장애 발생 이전의 점수)×100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장애가 본인과 가족의 삶에 미친 영향

장애인삶패널에서는 장애인 패널을 추적하였기 때문에 가구원에 대한 조사 설계도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조사와 차별화 되면서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주는 문항이 존재한다. '장애가 장애인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인의 장애가 함께 사는 가구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항이다. 이 문항의 응답을 통해 장애인 본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

아 왔던 장애인 가족의 삶(돌봄 부담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삶패널에서 다루는 8가지 영역 중 일부인, 생활방식, 직업/구직, 외출/여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는 “장애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도”를 묻는 질문에 “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부터 “⑩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까지 중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가구원에게는 “패널(장애인)의 장애가 귀하의 삶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대하여 동일한 선택지로 응답하게 한다. 이하의 결과는 원자료의 응답값을 역코딩한 것으로, 더 높은 점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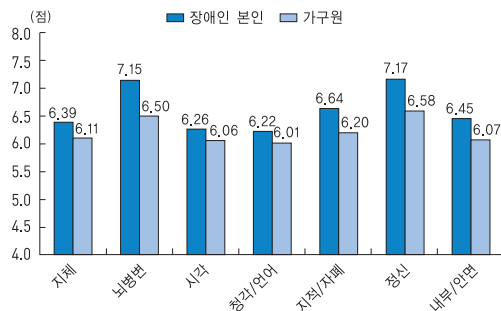
[그림 xi-26]은 장애가 생활방식에 미친 영향을 장애 유형별 장애인 당사자와 가구원을 병렬하여 제시한 것이다. 장애인 본인이 인식하는 장애가 생활방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정신장애(7.17점)와 뇌병변장애(7.15점)에서 가장 크다. 청각/언어 장애(6.22점)와 시각장애(6.26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장애인의 가족이 느끼는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정신장애(6.58점)와 뇌병변장애(6.50점)에서 높은 편이다.

여기서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점수 수준뿐만 아니라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점수 차이를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장애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가구원이 느끼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은 가족 내 장애인으로 인한 돌봄의 부담 혹은 정신적·물리적인 일상의 제약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과 가족의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가구원 점수/장애인 본인 점수), 모든 장애 유형에서 90% 이상의 값을 보이지만, 청각/언어 장애(96.6%), 시각장애(96.9%), 지체장애(95.6%)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이들 장애 유형은 생활방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정신장애나 뇌병변장애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가구원이 인식하는 부정적 영향이 장애인 본인의 그것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그림 xi-26] 장애 유형별 장애가 생활방식에 미친 영향, 202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1~10점).

2) 가구원의 값은 장애인에게 매칭된 가구원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장애가 생활방식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장애 정도, 연령,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 이용은 장애인 삶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36개의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를 수급/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이용’으로 구분한 것이다.

우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 인식하는 부정적 영향은 6.97점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6.24점에 비해 큰 차이로 높았다. 가구원이 인식하는 수준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가구원(6.43점)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가구원(6.00점)에 비해 높다. 연령대별로는 당사자의 경우 0~18세가 가장 낮고(6.25점), 19~49세는 6.62점으로 가장 높는데, 가구원의 생활방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장애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크게 나타났다. 가구원이 인식하는 성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이 아동 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정부의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도 작지 않았다.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 방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서비스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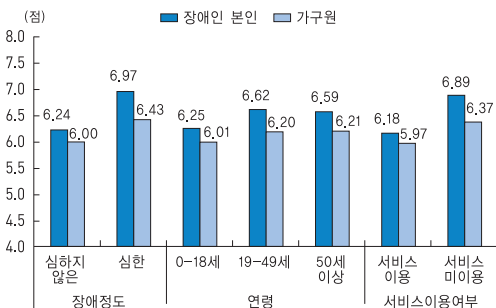
이 있는 경우는 6.18점으로,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6.89점)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았다. 가구원이 느끼는 부정적 영향도 차이가 있었는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5.97점으로 6점 이하로 내려갔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37점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가구원 수준으로 점수가 높았다.

장애가 직업/구직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이나 차별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을 의미할 것이며, 가구원에게는 가족의 장애로 인해 가구 내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의 여력이 감소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당사자와 가구원의 점수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았다(본인: 7.56점, 가구원 평균: 6.39점). 최종증 장애 당사자의 건강상태, 그리고 이에 대한 가구원의 돌봄 부담이 지표로 드러난다. 그다음은 정신장애로, 당사자의 점수는 뇌병변장애와 거의 동일하고(7.58점), 가구원의 점수도 6.28점으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

가구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장애 유형은 내부/안면 장애였는데(5.89점), 장애인 본인의 점수는 가장 낮지 않았다(6.78점). 이는 내부/안면 장애인이 직업 혹은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구원의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장애는 가구원의 일상

[그림 xi-27] 장애 정도, 연령대, 사회서비스 이용별 장애가 생활방식에 미친 영향,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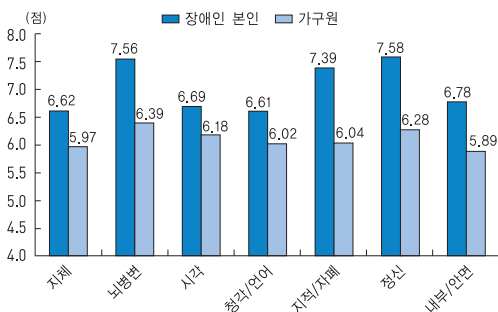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1~10점).

2) 가구원의 값은 장애인에게 매칭된 가구원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적인 돌봄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건강상태(만성질환 등)에 대한 의료적 케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림 xi-28] 장애 유형별 장애가 직업/구직에 미친 영향, 202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1~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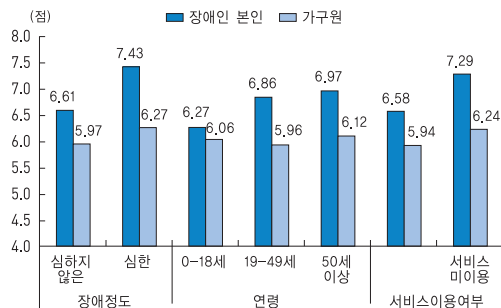
2) 가구원의 값은 장애인에게 매칭된 가구원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직업/구직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7.43점), 그의 가구원의 직업/구직에도 부정적 영향이 6.27점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생활방식 영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직업/구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본인: 6.97점, 가구원 6.12점). 그리고 장애인의 연령대가 0~18세인 경우, 가구원이 인식하는 부정적 영향은 19~49세의 그것에 비해 소폭 높았는데, 이는 아동 장애인의 보호자가 돌봄을 우선하여 자신의 경제활동을 차순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차이는 직업/구직에서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나, 장애 유형에 따른 차이만큼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응답한 부정적 영향의 점수가 높고(7.29점),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낮았다(6.58점). 가구원의 점수에서도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는 장애 정도별 차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xi-29] 장애 정도, 연령대, 사회서비스 이용별 장애가 직업/구직에 미친 영향,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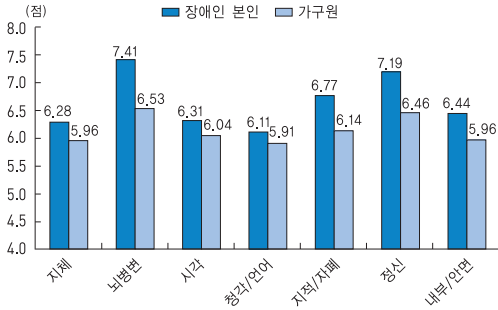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1~10점).

2) 가구원의 값은 장애인에게 매칭된 가구원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외출/여가활동은 다른 생활영역에 비해 본인과 가족의 장애로 인해 줄이거나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일상일 것이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본 외출/여가활동에 미친 장애의 부정적 영향은 뇌병변장애가 7.4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정신장애(7.19점)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의 점수 또한 뇌병변장애에 6.53점, 정신장애에 6.4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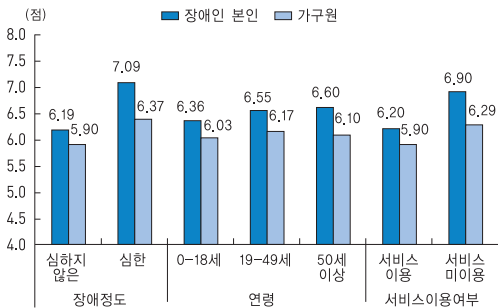
[그림 xi-30] 장애 유형별 장애가 외출/여가활동에 미친 영향, 202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1~10점).
 2) 가구원의 값은 장애인에게 매칭된 가구원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장애 정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차이는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일수록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컸으며, 가구원의 외출/여가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9~49세 연령대가 가장 컸다. 가구원이 감당해야 하는 성인 장애인

[그림 xi-31] 장애 정도, 연령대, 사회서비스 이용별 장애가 외출/여가활동에 미친 영향, 202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1~10점).
 2) 가구원의 값은 장애인에게 매칭된 가구원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에 대한 돌봄 부담이 다른 연령대의 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른 차이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는 당사자가 6.90점, 가구원이 6.29점이었던 반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점수는 6.20점, 가구원은 5.90점으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맺음말

장애인의 삶의 질을 여러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예상한 대로 장애인의 삶의 질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았다. 한국복지패널의 모든 관측 기간에 장애인의 삶의 질은 꾸준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었다. 다만, 비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함께 높아졌기에 비단 장애인의 삶만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의 차이 혹은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글에서 살펴본 바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삶의 질 격차는 최근에 와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장애인 그룹 내부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의 차이가 최근에 이르러 상당히 좁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정체되는 가운데,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삶의 질이 상승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관측 기간에 이루어졌던 장애인 관련

법제적 개선이 다소간 작용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생활영역에 따라서는 장애인 그룹 내부에서의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는 경향도 나타나기에, 장애 정도와 유형, 장애인 가구의 특성과 그들에게 놓인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조사 자료로는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 유형별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가구원에게 장애가 이들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 결과, 장애인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

주하기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대별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관찰되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구원 간 부정적 경험의 차이도 작지 않았으며,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원이 경험하는 돌봄 부담과 일상의 제약 정도가 다르기에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가족까지 포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에 따라 장애인과 그 가족이 느끼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25. 「한국복지패널 19차년도 조사자료 유저가이드」.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장애인삶 패널조사 이용자 안내서(1~5차)」.
-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6. World Happiness Report 2016, Update(Vol. I).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